

나주혁신도시 웅비... '新영산강시대' 활짝

우정정보센터 개칭
공공기관 이전 순조
내년 하반기 입주 마무리



빛가람도시 첫 이주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가 3일 현판식을 갖고 나주시대를 열었다. 공식 개청식을 겸한 현판식에는 임성훈 나주시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배기운 국회의원,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도시) 첫 이주 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가 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등 빛가람도시 조성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관련기사 3면>
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건설이 불투명했던 빛가람도시 북측도로를 시행사에서 개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옥 건립도 최근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빛가람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기관 중 가장 먼저 입주식을 갖고, '나주 시대'를 연 우정정보센터는 현재 8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또 이들 직원들은 최근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사 1촌' 운동을 통해 농촌 봉사에 나서는 등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빛가람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나주는 전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빛가람도시의 건설기간에만 8조

5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어 도로와 광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권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현재 빛가람도시 부지 조성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가로등과 조경공사만 남은 상태다. 또 이전기관들의 청사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돼 이르면 2014년 하반기에는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나주 사옥 축소에 반발하던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 내 이달중으로 건축계획변경을 통해 사옥 건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도 1호선(광주~나주)으로 연결되는 빛가람도시의 가장 중요한 진입로인 북측도로(길이 0.89km·예산 398억원)도 최근 광주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애초 이 도로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1개 혁신도시에 1개 진입로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고 지원을 해주지 않아 6년째 건설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견철 원장은

이 외에 광주·전남 공약사업 가운데 ▲광주 도심 하천 생태 복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약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빛가람도시 경제효과
혁신도시 건설기간 중
· 생산유발효과 : 8조 5,744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 3조 8,259억원
· 고용 유발효과 : 7만 5,270명
· 소득 유발효과 : 2조 824억원
혁신도시 건설 후
· 생산 유발효과 : 1조 1,133억원
· 고용 유발효과 : 1,761명 (자료 : 국토연구원)
"빛가람도시를 통해 호남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림 '광일춘추' 필진 바뀝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을 모시고 공동 게재하는 특색있는 '광일춘추'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매일신문·경인일보·경남신문·강원일보·대전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전문가로 필진을 구성, 우리 사회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전 브라질 대사 ▲전 멕시코 대사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사무처장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득염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문화예술특성화 사업단 단장 ▲광주문화홍보심도심 실무위원 ▲광주광역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이우결 시인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경남문화관 관장 ▲밀양교육청 교육장 ▲경남문인협회 회장
- ◇혜문 스킵
▲문화재 제자리찾기대표 ▲조선왕실의궤연구소위원 사무처장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2012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정부 "대선 지방공약 160개중 신규 90개 수술 대상" 광주·전남 SOC 무더기 축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160여개 대선 지역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이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면서 상당수 사업이 축소되거나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원안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

면서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속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5개 지방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사업 수로 환산하면 160여개로 계속 사업이 70여개, 신규 사업은 9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원, 70여개 계속 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0조원에 달하는 계속사업의 경우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모두 반영돼 있어 정부는 신규사업 총 사업비 84조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한국

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고속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 사업은 추진은 하되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낙포동을 연결하는 한려대교(길이 4.2km, 4차선) 건설사업은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됐으나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경우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축소·보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외에 광주·전남 공약사업 가운데 ▲광주 도심 하천 생태 복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약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故김대중 前대통령 36년만에 무죄 '긴급조치 위반' 문익환·함석헌 등 16명 누명 벗어

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이희호 여사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재철 민주당 상임고문 등 유족들은 재심청구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여기 있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고 재심 판결에 깊은 사회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너썬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7월호
6월 27일 발매

기획 특집
티끌모아 예술 투자
클라우드 펀딩에서 희망을 본다
클라우드 펀딩 성공사례와 가능성 진단
착한 자본이 완성한 소록도 벼화 프로젝트, 영화 26년

커버스토리
올 여름 힐링이 필요한 당신
걷기, 명상, 문화충전 어때요?
제주올레길, 광주전남 치유의 길,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생생한 체험의 현장과 활용 정보 수록

기획 특집
티끌모아 예술 투자
클라우드 펀딩에서 희망을 본다
클라우드 펀딩 성공사례와 가능성 진단
착한 자본이 완성한 소록도 벼화 프로젝트, 영화 26년

스페셜 인터뷰
치유의 길, 희망 개척한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올레길 뒤편은 자연과 길에서 배운 삶의 의미

마주앉은 책과 삶
사진작가 배병우
세계가 감탄한 빛그림 '소나무' 치밀한 작가정신을 만나다

이달의 아티스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이다"

글로벌 아트
떠오르는 미술시장, 홍콩을 가다
아트바젤 홍콩에서 전망하는 아시아 미술

여행작가 노준호와 떠나는 '우리 땅 속살 여행' 역사, 자연, 사람, 사할 끝없는 해남의 매력

문화동행, 편린 클럽
자부심을 연주하는
정음문화원 수제천 연주단

행복한 컴퓨터
30년 동안 옛 책 10만여 점 수집해 온
화봉문고 '여승구' 대표의 각별한 고서 사랑

미로미로
극성 국내 최대 간헐미술관, 전라남도 옥곡미술관을 가다

스타 데이트
광주출신 '국민 첫사랑' 수지와 첫 데이트
"내년에 스무살, 하고 싶은 것 많아"